

## 가정내 아동학대,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!

- 아동학대의 80% 이상이 가정내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.

### ● 아동학대란?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

### 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?

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하여,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※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2014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를 '알게된 경우' 외 '의심이 있는 경우'에도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### ◆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◆

- **교사 직군** | 교육 보직원,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, 초·중등 교직원,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 교사,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
- **의료인 직군** | 의료인, 의료기사, 구급대 대원, 응급구조사, 정신보건센터 종사자
- **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** |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, 아동복지시설 종사자, 아동복지전담공무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,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,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,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,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,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, 청소년 보호센터
- **신설직군** | 아이돌봄 자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,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



##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편견은 그만!

가정폭력! 당신(피해자)의 잘못이 아닙니다.

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할 수 있는 폭력은 없습니다.

가정폭력은 범죄행위입니다.

누구나 가정폭력 피해자 일 수 있습니다,

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.

내 이웃이 가정폭력으로 괴로워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.

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.

###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?

- ▶ 국번없이 「112」로 신고 하세요
- ▶ 가정폭력 상담 및 긴급피난처 제공, 보호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☎ 1366, 이주여성은 다누리콜 ☎ 1577-1366 (또는 ☎ 1577-5432)에 전화 하세요
- ▶ 학대 받은 아동을 발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아동 보호전문기관(☎ 1577-1391)에 또는 경찰(☎ 112)에 전화해 주세요

## 가정폭력 예방

당신의 작은 **관심**에서 시작됩니다.



110-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(세종로)  
www.mogef.go.kr



120-7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
www.police.go.kr



##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물려주시겠습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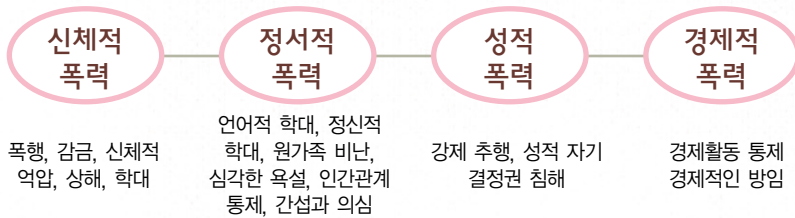
### ● 가정폭력이란?

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·정신적·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.

### ● 가정구성원의 범위는

-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)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
-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(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)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동거하는 친족

### ● 가정폭력의 유형



### ● 고소에 관한 특례

-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가능합니다.

### ● 가정보호사건 처리

-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접근제한, 친권제한, 사회봉사·수강명령 등의 「가정보호처분」을 통해 행위자 폭력성행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
#### 〈가정보호처분 결정〉

- ① 접근제한 ② 전기통신 이용 접근행위 제한 ③ 친권행사 제한  
④ 사회봉사·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⑥ 감호위탁 ⑦ 치료위탁 ⑧ 상담위탁

## 당신에게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?

### ●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때, 먼저 「112」에 신고 하세요.

-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,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등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,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.

- **피해자 긴급구호**: 여성긴급전화(☎ 1366), 다누리콜(☎ 1577-1366 또는 1577-5432)
- **무료 법률지원**: 대한법률구조공단(☎ 132), 한국가정법률상담소(☎ 1644-7077)
- **피해치료 지원**: 지자체, 여성긴급전화1366센터, 보호시설, 상담소, 원스톱지원센터 등

### ●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경찰관에게 「긴급임시조치」 및 「임시조치 신청」이 가능합니다.

#### ● 긴급임시조치란?

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①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② 주거, 직장 등에서 100m 내 접근금지 ③ 전화, 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● 임시조치란?

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경찰 신청,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①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② 주거, 직장 등에서 100m 내 접근금지 ③ 전화, 이메일 등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⑤ 유치장(또는 구치소) 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(1호~3호)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임시조치 5호(유치장·구치소 유치)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### ●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「피해자보호명령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①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② 주거, 직장 등에서 100m 내 접근금지 ③ 전화, 이메일 등 접근금지 ④ 친권행사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가해자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## 가정폭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지원제도

### ●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를 돕고,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#### ① 보호시설(쉼터) 입소지원

가정폭력 피해자 중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에 한해 관련 상담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. 특히, 10세 이상 남자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중

#### ② 무료 법률지원

대한법률구조공단(☎ 132), 한국가정법률상담소(☎ 1644-7077)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·가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

※ 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지원

#### ③ 의료지원

가정폭력으로 인한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신체적·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, 입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

#### ④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

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(입학, 재입학, 전학 및 편입학 포함)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학지원

#### ⑤ 주민등록 열람제한

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

#### ⑥ 주거지원

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

#### ⑦ 이혼시 '부부상담 거부, 자녀면접교섭권 제한' 가능

법원의 부부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(재판상 불이익 등 없음),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'자녀면접교섭권'을 제한 가능